

시끌벅적 e-스타



남자들의 눈돌리기는 결국 본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여성들을 향한 남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도 있다. 지나가는 미인에 눈길이 가고, 과감한 노출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간다는 남자들. 이에 관련한 동영상도 등장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동영상 ‘남자들의 어쩔 수 없는 시선’은 무려 19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은 한쪽으로 일제히 시선이 몰려있는 군인들의 사진이 등장하면서 시작한다. 한쪽으로 쏠려있는 시선 끝에는 늘씬한 두 미녀가 있다. 이어 카메라가 아닌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둔 남성들의 사진이 쏠쏘이 등장한다. 사진 찍는 것은 안중에 없이 여자 몸매 감상에 빠진 남자들은 은근 슬쩍 아닌 척 시

선을 쳐리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 신경안 쓰고 대놓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 잘못하다가는 목 돌아가시겠다. 여자들의 시선을 끄는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남자들의 그윽한 시선과 달리 이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은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 다 큰 성인인 그녀도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꼬마 녀석들도 어색한 표정과 시선처리로 동영상에 등장한다. 동영상의 결론은 하나다. 남자들의 눈돌리기는 결국 ‘본능’이라는 것이다. 동영상을 본 남성 네티즌은 “눈 안 돌아가는 남자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여자들도 혼남을 지나가면 위아래로 훑던데...”, “생각하기도 전에 눈이 돌아간다. 정말 예쁜 여자한테는 목도 돌아간다” 며 자극히 당연한 본능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파스칼리

‘이럴 땐 꼭 사람의 음악을 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찾아 듣고 싶은 곡이 있다. 감정의 굴곡에서 무언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음악을 찾게 된다. 그럴때 특정 장르를 선택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지닌 뮤지션의 음악이 듣고 싶어지는데 오늘 소개할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Chris Rea(크리스 리)가 필자에게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음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계인 크리스 리는 어린 시절부터 Joe Walsh(조 월시)와 Ry Cooder(라이 쿠더)의 영향을 받으며 기타 연주에 심취해 기타리스트로서의 자질을 익혔다. 이후 잠시 그룹 연주 생활을 하는데 이 때 만난 사람이 Deep Purple의 보컬리스트였던 David Coverdale이다.



이 앨범은 그가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작곡한 곡들을 수록해서인지 녹음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곳에서 했다. 쓸쓸하게 여행을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슬라이드 기타 연주와 피아프 소리가 어우러지며 시작되는 Curse Of Traveller에는 도시적이며 세련된 고독이 담겨 있다.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벗어나고 싶은 삶의 고통과 저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블루스의 느낌이 묻어나는 기타 연주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읊조리는 듯 절제된 힘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현실의 삶을 관조하는 시각으로 노래한다. 이 때문에 평론가들은 Tom Waits의 고독감과 Leonard Cohen의 시적 감수성을 함께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거기에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록 뮤지션의 반항성은 크리스 리를 브루스 스프링스틴에 대한 영국의 대답이라고 할 만큼 영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미국에서의 평가는 조금 인색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상업적인 음악을 하지 않음에도 3천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올리며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멋진 뮤지션이다. 가끔 우리는 일상에서의 일탈로 여행을 한다. 그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크리스 리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 감정의 다양함도 함께 느껴보았으면 한다. <김팔팔리스트·광주교류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선행자’>

크리스 리 기타연주 들으며 일상탈출

그들 Magdalene에서 활동을 하던 크리스 리는 78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데뷔 앨범에 실려 있는 Fool(If You Think It's Over)은 시련의 상처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곡은 빌보드 싱글차트 12위에 오르는 호평을 속에 같은 해 그래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듬해 발표한 Delics 앨범에 수록된 Raincoat And Rose는 그의 마니아층을 만들어 준 곡이 되었다. 이곡은 필자가 DJ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비오는 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다. 크리스 리가 83년에 발표한 Love's Strange Ways는 90년 이후 영화 ‘거짓말’에 삽입이 되면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8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다시 소개된 그의 앨범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다이나믹한 DJ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오늘 소개할 곡은 바로 그 무렵인 87년에 발표한 앨범 ‘Dancing With Strangers’에 수록된

36년생 은 식습이 편안하다. 48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60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72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84년생 돈이 생기거나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0, 28

리빙 센스
뽀루지 예방
1. T존 관리
2.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3. 핸드폰은 깨끗하게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음 4월 18일 壬戌)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은 식습이 편안하다. 48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60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72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84년생 돈이 생기거나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0, 28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흑 ▲로 져서 계속해서 백 대마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다. 박문홍 7단은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두면 서도 집의 균형은 그러저러 맞춰가면서 후반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 98부터 106까지는 안전책, 흑시라도 백 대마가 쫓길까봐 조심 또 조심하면서 110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흑 109를 두어 상반 집을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흑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 검토실의 중론인데 백 120 때 송홍석 7단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고 만다. 흑 12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먹여야 했다. 그러면 7로 먹여치는 수가 선수가므로 가운데 9로 찢히기만 전체 백 대마가 두껍게 얽힌다. 흑이 귀중한 선수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121로 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갔다. 130으로 끊게 되어서는 극미의 형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귀중한 선수를 놓쳤다 6보(98~130)
白 박문홍 7단 黑 송홍석 7단
바둑소식
이민진 기본종은 2연승
이민진 5단이 21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육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회전에서 박영찬 3단을 305수 끝에 5집반으로 따돌리며 대회 2연승을 거뒀다. 이민진은 초반 하면 전투를 이기며 승기를 잡았고, 막판 박영찬의 맹추격을 따돌리며 승리를 지켜냈다. 지난 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이민진은 이번 대회에서는 2연승을 달리며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민진은 22일 권갑룡 7단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30초 3회 덤 6집반이다. 상금은 우승 7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마플라스트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원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65>
It was a great wedding.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 있어
A: Did you hear about Diana getting married? B: No, when did that happen? A: Last Saturday. It was a great wedding. B: That's really cool.
A: 자네 들었어? 다이애나가 결혼했다는 소식 말이야. B: 아니, 언제 있었는대? A: 지난주 토요일에요.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 있었어. B: 정말 잘됐구나.
* cool : 훌륭한, 근사한
* 들었어? 그 자동차가 폭발한 것 말입니다. = Did you hear about the car exploding?
오하오우 니혼고 <1165>
勉強家(べんきょうか)ですね。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군
A: 何の本を読んでいるんですか。難(むずか)しそうな本ですね。 B: 今、話題(わだい)の遺傳子工學(いでんしこうがく)の本ですよ。 A: すごい、勉強家(べんきょうか)ですね。 B: いいえ、ちょっと興味(きょうみ)があって生(なま)かじりしてだけです。
A: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어려운 책 같습니다. B: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공학 책입니다. A: 대단하군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군요. B: 아니요. 조금 흥미가 있어서 수박 겉핥기 정도일 뿐입니다.
難(むずか)しそう : 어려운 것 같다
話題(わだい) : 화제
~~~だけ : ~~만
니하오 쑹구위 <142>
你带没带铅笔刀? 연필깎이 가지고 왔습니까?
A: 你带没带铅笔刀? ni dài mé dài qiānbǐ dāo B: 带了。 dài le C: 借我用用, 可以吗? jiè wǒ yòngyòng kěyǐ ma D: 可以。 kěyǐ
A: 연필깎이 가지고 왔습니까? B: 가져고 왔습니다. A: 빌려 주시겠습니까? B: 빌려줍니다.
铅笔刀 [qiānbǐ dāo] 연필 깎 [dāo]
한자 이야기 <782>
星火(성화) 별성, 불화
성화(星火)는 유성(流星)을 뜻하며, 유성처럼 빠름을 비유하거나, 유성같이 매우 다급함을 비유한다. 고사성화(急如星火)는 곧 ‘급하기가 유성 같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급여성화’는 이밀(李密, 224-287)의 ‘진정표’(陳情表)라는 문장에서 유래한다. 이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하(何)씨가 개가하여 조모(祖母) 유(劉)씨의 손에서 자랐으며 효심이 매우 도타웠다. 진(晉)나라 무제(武帝)가 태자 세마(洗馬)라는 벼슬을 임명하였지만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진정표’를 올리고 관직을 사양하였다. 그 진정표에서 자신이 관직에 나가지 않자 “군(郡)과 현(縣)에서는 다그쳐서 제가 길을 떠나도록 재촉하며, 주(州)의 관리들도 문 앞에 와서는 성화(星火)같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종락- 자신도 명령에 따라 빨리 조정에 나가고 싶지만 조모의 병환이 날로 위독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야 할지 물러가야 할지 참으로 낭패(狼狽)입니다”라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이밀의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며, 한유의 제십이량문(祭十二郎文)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애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